유안타증권

Global Strategist 민병규 3770-3635

글로벌 전략 노트

Weekly takeaways(9/17일)

두 개의 경제와 세 가지 테마

15일 확인된 중국의 8월 주요 경제지표 모두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기록. 그럼에도 중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 경제와 증시의 탈동조화는 중국 경제의 이중적 면모를 반영. 정부의 육성 의지가 담긴 신경제와 구조조정으로 재편 중인 구경제 산업의 온도차는 뚜렷하게 구분.

8월 소매판매 YoY 는 7월 3.7%에서 3.4%로 둔화. 이구환신이 적용된 가전제품, 통신장비의 역기저 효과가 뚜렷. 반면 정부의 정책 관심이 이전된 서비스소비와 연관된 품목(문화/오락용품)의 성장세는 강화. 8월 온라인 소매판매 YoY 역시 상품은 1.0%, 서비스는 16.4%로 격차가 상당. NBS 소비자심리지수 내 '소비의향과 소득여건지수'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우려와 거리가 있는 내용.

고정자산투자 YTD YoY 는 7월 1.6%에서 8월 0.5%로 추가 악화.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수치는 4.2%로,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잔존. 그러나 정부가 육성 의지를 가진 첨단산업(컴퓨터/장비 12.6%, 우주항공 28.0%, 정보서비스 34.1%)에 대한 투자는 고공 행진. 부동산개발투자를 위한 국내 대출 수요도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해 회복세.

8월 산업생산 YoY 는 5.2%로 비교적 양호. 역시 산업용로봇 14.4%, 전기차 22.7%, 전력기기 30.7%와 같은 정책 연관 산업의 경기는 활황. 중국은 첨단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 이러한 기술자립 목표를 망라한 '신질생산력'은 15차 5개년 규획의 유력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 결국 중국의 첨단산업은 정부가 높은 성장성을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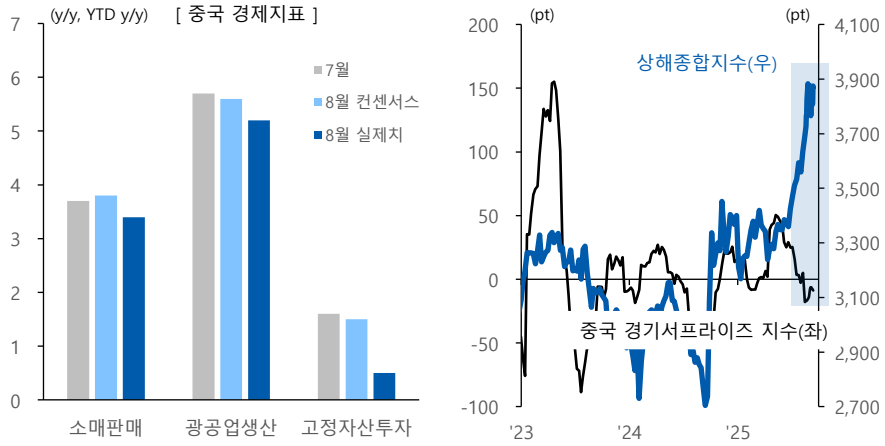
양극화는 증시에서도 발생. 하반기 CSI300 Communication 섹터는 +60.2%, IT 는 +37.7% 급등(CSI 분류 기준).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IT H/W 기업에 해당(이외 S/W, 희토류).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기술자립(AI+) 테마는 차익 실현 압력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 이를 계승할 대안은 아직 주가 반영 강도가 낮은 녹색전환(KGRN US YTD 32.5%,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 ETF)과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헬스케어(KURE US YTD 48.3%, KraneShares MSCI All China Health Care ETF).

Key Charts

15일 확인된 중국의 8월 주요 경제지표 모두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기록. 그럼에도 중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

경제와 증시의 탈동조화는 중국 경제의 이중적인 면모를 반영. 정부의 육성 의지가 담긴 신경제와 구조조정으로 재편 중인 구경제 산업의 온도차는 뚜렷하게 구분.

8월 주요 경제지표 모두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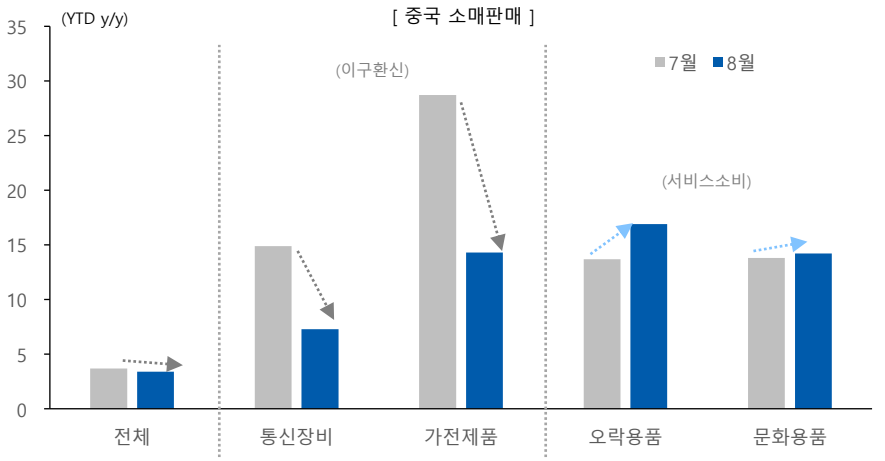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월 소매판매 YoY는 7월 3.7%에서 3.4%로 둔화. 이구환신이 적용된 가전제품, 통신장비의 역기저 효과가 뚜렷.

반면 정부의 정책 관심이 이전된 서비스소비와 연관된 품목(문화/오락용품)의 성장세는 강화.

정부의 관심이 이전된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품목의 성장세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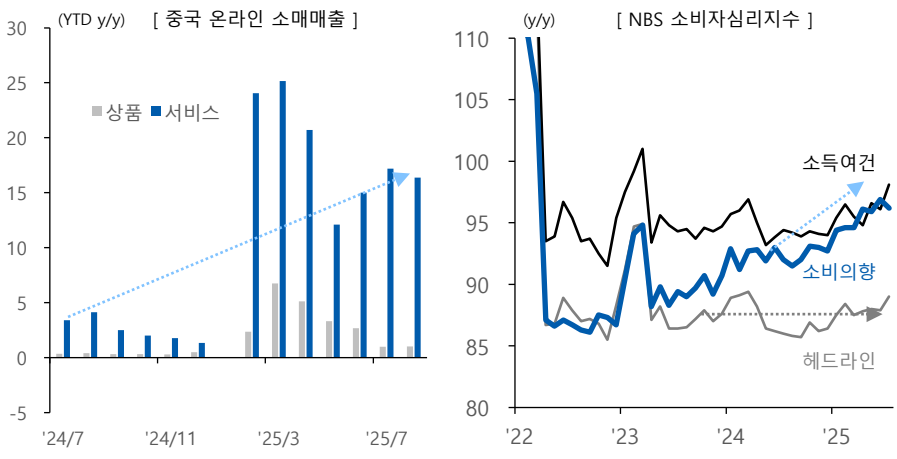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월 온라인 소매판매 YoY 역시 상품은 1.0%, 서비스는 16.4%로 격차가 상당.

NBS 소비자심리지수 내 '소비의 향과 소득여건지수'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우려와 거리가 있는 내용.

온라인 소매판매 역시 상품과 서비스의 격차가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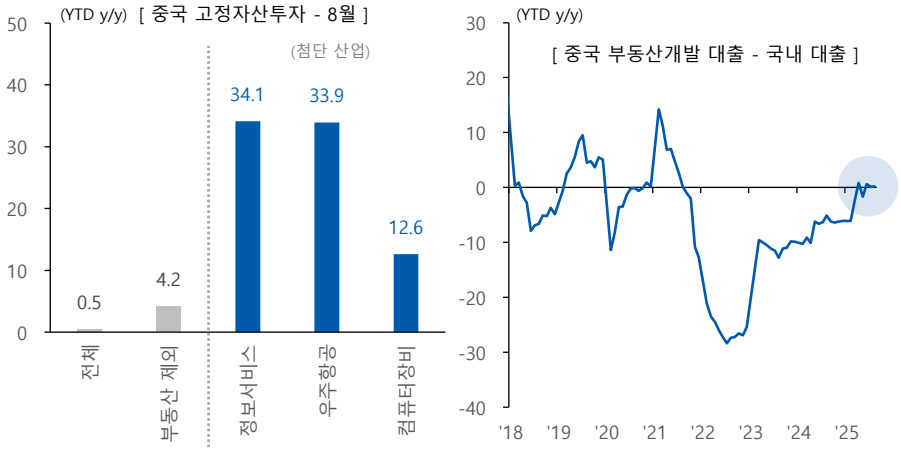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s

고정자산투자 YTD YoY는 7월 1.6%에서 8월 0.5%로 추가 악화.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수치는 4.2%로,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잔존. 그러나 정부가 육성 의지를 가진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공 행진.

부동산개발투자를 위한 국내 대출 수요도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해 회복세.

정부가 육성 의지를 가진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공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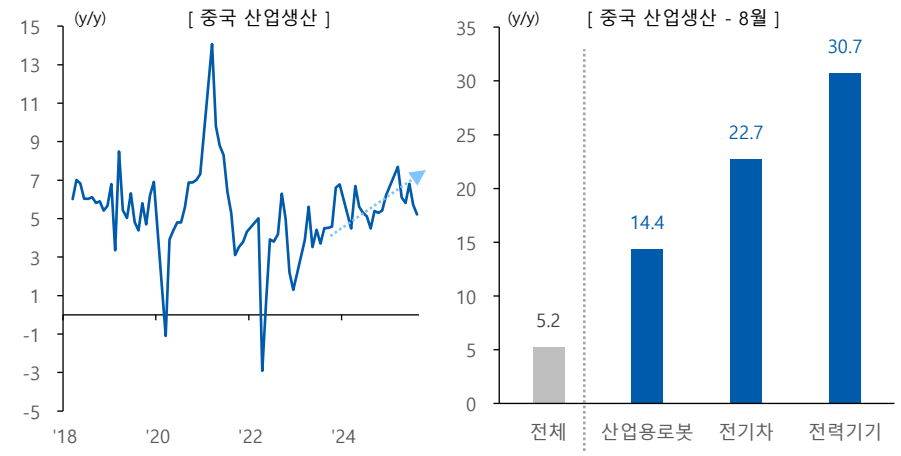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월 산업생산 YoY는 5.2%로 비교적 양호. 역시 산업용로봇 14.4%, 전기차 22.7%, 전력기기 30.7%와 같은 정책 연관 산업의 경기는 활황.

중국은 첨단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 이러한 기술자립 목표를 망라한 '신질생산력'은 15차 5개년 규획의 유력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 결국 중국의 첨단산업은 정부가 높은 성장성을 보증.

산업생산 역시 정책과 연관된 산업의 경기는 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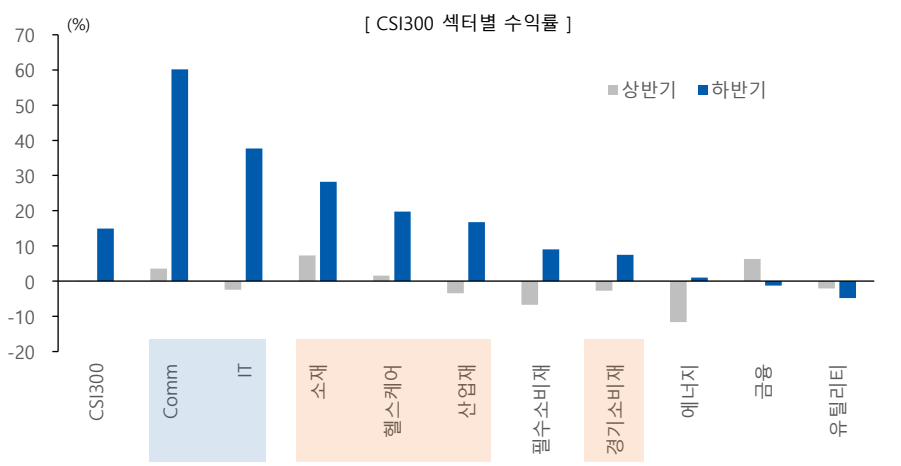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양극화는 증시에서도 발생. 하반기 CSI300 Communication 섹터는 +60.2%, IT는 +37.7% 급등.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IT H/W 기업에 해당(이외 S/W, 희토류).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기술자립(AI+) 테마는 차익 실현 압력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 이를 계승할 대안은 아직 주가 반영 강도가 낮은 녹색전환과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헬스케어.

양극화는 증시에서도 발생. AI+ → 녹색전환과 헬스케어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민병규)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